

졸업은 했는데...취업은 못하고

취업 한파 맞은 사회복지사 "일자리 어디 없나요"

상대적으로 편한이용시설 선호 취업난 부추켜

경기 침체의 끝이 깊어지면 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해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사들도 취업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회복지와 졸업생 중 상당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공부를 마쳤다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

지난달 학사모를 쓴 A씨. A씨는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돼버렸다.

4년제 대학 졸업 후 전문대학에 진학했던 A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꾸준히 해왔는데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졸업 이후에 결정된 것이 없어 걱정"이라며 심각한 취업난을 호소했다.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B씨는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

이라고 했다.

일부는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사회복지와 교수들은 전문분야에서 취업을 못해 다른 분야로 나서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 교수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는 일이 있다"면서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인력 손실"이라고 말했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4년제 대학에 편입해 공부를 더 하면서 사회 진출을 미루기도 한다.

제주한라대학 홍연숙 교수는 "사회복지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치기에는 2년은 너무 짧다"면서 "대학에 편입해 전문지식을 더 넓은 뒤 취업에 나서면 일자리를 얻기가 한층 수월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노인분야는 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사를 일정 부분 대체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아동센터와 다문화영역 등에서 새로운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생기고 있다"면서 "취업을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고 웃음치료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취업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생활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근무가 수월하다고 여기는 이용시설을 선호하는 것도 취업난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야간에 당직근무를 서는 등 출·퇴근이 불규칙한 생활시설보다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복지관 등 이용시설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취업 장벽을 뚫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C씨는 "힘든 시기에 취업에 성공한 만큼 대상자들에게 내 열정을 모두 쏟아 부어 사회복지사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C씨는 또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달에 2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자활참여자 생산품 하나로마트서 판매

이달부터 조릿대차 · 들국화차 · 무농약 미숫가루 등

제주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만든 제주 고유의 민속차(茶)와 생활용품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손수 만든 제주 민속차와 지갑 등 생활용품을 이달부터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게 됐다.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제주 조릿대차, 제주 구지뽕차, 제주 속차, 제주 들국화차, 야생꽃차 등 7가지 차와 친환경 무공해 비누, 무농약 미숫가루, 다포 · 스키프 · 지갑 등 천연염색 생활용품 등이다.

점포에는 일반 판매요원 2명과 복지도우미 2명 등 모두 4명이 운영인력으로 배치된다.

지금까지 자활참여자들이 생산한 제품들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특산물 판매전시장과 해안도로에 위치한 제주다드림 전통차 판매점에서 관광객 등에게 판매돼 왔으나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로가 개척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시는 이번 하나로마



△제주다드림



△제주구지뽕차, 제주속차, 제주조릿대차



△규절초차다기모음, 들국화차

트 점포 개설이 자활참여자들의 자립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면소개

- 종합 2 · 3면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 시설 탐방·탐방지정원
- 사회복지소식 4 · 5면
영어뮤지컬 · 소식마당
지적장애인 학사모 · 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 · 시론 · 기고
- 특집 7면
사회복지시설 개혁 토론회

입양가정에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제주시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수수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

다.

입양 수수료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70만원을 입양기관으로 지원한다.

(주)화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신뢰, 책임을 다합니다.

(주)화 성

대표이사 이삼훈

TEL. 064-727-0600

| 토목건축공사업 | HWASUG CONSTRUCTION CO., LTD.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상위 10% 시설 최고 3600만원 인센티브 지급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 상위 10% 안에 든 시설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2월 9일 입안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된다.

우선 올해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입소시설) 1700여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내년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복지용구 사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공고하고, 7월 1일부터 2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아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9월부터 3개월간 기관을 방문해 평가를 실시한다. 신청 전에 홈페이지 '우리기관 수준 알아보기'를 통해 자체평가 할 수도 있다.

평가결과는 12월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상위 10%에는 2010년부터 다음 평가때까지 500만원(10인 미만 시설)에서 최고 3600만원(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급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는 분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설이 서비스 질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실제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올해 노인요양시설의 60% 이상이 신청한다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상황에 적용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했고 향후 의견수렴으로 평가 매뉴얼을 보완한다면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평가방법이 어렵지 않으므로 행정부담이 적고 인센티브만 제공하므로 불리한 점도 없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평가해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설이 열악한 경우에도 참여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희망 나눔 음악회”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이 마련한 2009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희망 나눔 음악회가 2월 24일 천사어린이집에서 열려 서귀포합창단이 아름다운 선율로 원생들에게 노래를 선사하고 있다.

농어촌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서귀포시, 3420만원 투입 8가구 주거환경 개선

서귀포시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3420만원을 이미 확보한 서귀포시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은 8가구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결정했다.

6월까지 마무리되는 주택개

조 지원사업은 화장실 개조, 부엌수리, 싱크대 높이 조절, 문턱 낮추기, 보조 손잡이 설치, 도배 및 장판교체 등이 실시돼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이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거환경이 개선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2006년 13가구, 2007년 14가구, 지난해까지 9가구 등 지난 3년간 장애인 3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읍면동 사회복지 행정인턴 기본교육

26~27일 道사회복지협의회서

제주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신민준중 발굴 등 상담현장 서비스에 투입된 사회복지업무 보조인력인 행정인턴에 대해 실무 중심의 기본교육을 2월 26~27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산다수홀에서 실시했다.<사진>

제주시는 이틀간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행정인턴 42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할, 가정방문과 현장조사요령, 의사소통과 민원응대법,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지역사회서비스연계, 능동적복지 정책방향, 민생안정대책 업무처리요령 등을 교육해 현장 실무 중심의 업무처리능력을 높였다.

사회복지협의회 2009년 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480,000	480,000
난치병환아후원	160,000	0
자원봉사후원	465,000	465,000
복지사업후원	2,315,000	1,338,33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하세요”

제주시, 3월부터 가정방문 아이돌보미 서비스 시행

제주시는 일시적이거나 혹은 긴급한 상황으로 자녀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부부 등을 위해 이달부터 '가정방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교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학원의 등·하원, 학습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개월 이상 영아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과 4~6급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80시간(연 480시간) 이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i.or.kr)에 회원으로 가입해 신청을 하거나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725-9005)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주말 및 심야 6000원)이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족 195만6000원)는 시간당 4000원, 100% 이하(4인 가족 391만1000원)는 시간당 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道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 점자명함 사용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현만식)이 시각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도민사회 장애 벽 허물기' 차원에서 모든 직원이 점자명함을 제작해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점자명함은 기존의 명함에 기관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를 점자로 인쇄해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느끼게 하고, 사회적으로 장애인 편의 환경 만들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전 직원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앞으로 도내 모든 공무원들에게 점자명함 갖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도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점자명함은 제주도문화정보접지도서관이나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 신청하면 점자를 인쇄해 배부해 주고 있다.

제7대 제주장총 회장에 최성중씨 취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7대 회장에 최성중(사진) 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장이 2월 1일 취임했다.

최성중 신임 회장은 "변화의 시대를 맞아 장애인단체도 변화해야 한다"며 "장애인단체들의 힘을 모아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조례화 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간호과정을 수료한 최성중 회

장은 제주도 대학연합회 적십자회 회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발전자문회의 부위원장과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통합보육지원센터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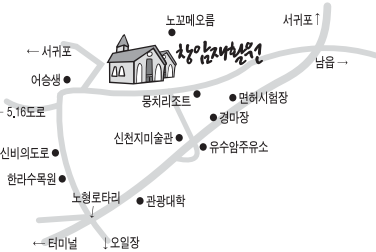
시설탐방

(16)청암재활원



맞춤형 재활치료 중점 제공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청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은 장애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심리적 환경개선 및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 인식에 대한 사회환경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의지와 자립의지를 높여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2005년 3월 문을 열었다.



청암재활원은 그룹홈 형태의 5개의 유니트로 나뉘어 중증장애아동 49명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 3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장애아동 모두가 학령기여서 특수학교인 제주영송학교, 제주영지학교, 장애인답어린이집인 해안어린이집, 유진어린이집 등에 다니고 있다.

청암재활원에서는 기초자립서비스, 여가생활지도, 방학지원 프로그램 등의 생활재활 프로그램을 비롯해 교육재활 및 사회 적응훈련과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개인별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의료재활, 물리치료, 건강검진 및 각종 재활치료 등의 의료·교육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운영되고 있다.

면역력이 약한 중증장애아동들이어서 감기나 폐렴 등이 잦아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어야 하고, 아동들의 재활·물리치료를 의료재활팀에서만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주추진강의원에서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개인별 의료·교육재활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박 원장 "장애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에 감사"



올해에는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을 실시해 주 2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감각통합치료, 인지행동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를 받음으로써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숨겨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체육관을 지어 전시실 및 치료실, 강당, 세미나실로 꾸며 주로 방안에 서만 생활하는 중증장애아동들이 바깥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공동모금회 지원프로그램인 '정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신나는 목공활동'을 운영해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찾아줄 수 없는 중증장애아동들에게 흥미와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제공한 화원에서 원예치료를 시행하고, 청암재활원 내 2만여평에 조성된 산책로를 반반하고 고르게 만든 뒤 파고라 등 부대시설을 갖춘 소공원을 조

성해 도내 장애가족들이 맘놓고 이용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로 제공할 계획이다.

박광수 원장은 "여기 모든 아동들이 '장애'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한대"며 "내 삶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직원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밤낮으로 노력을 기울이며 장애아동들을 보살피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이다 보니 일손이 많이 부족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사회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소영 명예기자>

보건복지여성분야 7568명 일자리 창출

올해 보건복지여성분야에서 7568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아 돌보미 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등 보건복지여성 8개 분야 사업에 447억원을 투입해 7568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703명보다 865명이 많은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노인분야 2179명 ▲장애인분야 991명 ▲아동분야 128명 ▲여성분야 800명 ▲보육분야 1995명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1250명 ▲다문화 가정 및 가족지원 45명 ▲지역사회서비

스 180명 등이다.

제주도는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인·장애인 돌보미 지원사업, 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 등 개별 단위사업을 조끼시행하고, 각종 보조금의 사후 정산제 등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노인일자리 6억5000만원(500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2억원(83명), 보육대체교사 인건비 5800만원(10명), 시각장애인 헬스케어 5000만원(10명) 등 총 9억58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09년 보육발전 시행계획 수립

도, 37개 사업에 1059억 투자

제주특별 자치도는 2006년 마련된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인 '제주새싹플랜'을 기초로 공보육 기반 조성과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6개 과제 37개 사업에 1059억원을 투자하는 2009년도 보육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이하(2층)까지만 지원하던 무상보육료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3층)까지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만 0~1세)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i-사랑카드'를 발급해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읍·면 지역 보육시설에만 이뤄지던 냉난방비 지원이 도내 모든 보육시설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맞벌이 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아·장애아 전담, 시간연장형, 방과후 등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서관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실시

앞으로 장애인과 노인들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도서를 빌려볼 수 있게 됐다.

제주도서관(관장 고운하)은 오는 3일부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제주시 동(洞) 지역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서대출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장애인과 노인들은 도서관을 직접 찾지 않고 전화로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무료로 가정에서 책

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1인당 3권씩 최대 14일간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반납역시 도서관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이뤄진다.

신청 및 접수는 장애인은 장애인 신분증 사본과 회원가입신청서를, 65세 이상 노인은 신분증 사본과 회원가입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뒤 직접 또는 대리 방문하거나 팩스(722-2995)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제주도서관 열람부(722-2997).

자동차부분정비조합-어울림터 자매결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춘강 어울림터(원장 조인석)와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이사장 고덕우)은 2월 7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상호우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었다.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이날 후원금 전달과 함께 협약



서를 체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재선

전국 162개 장애인복지관을 대표하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에 이동한(사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선출됐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2월 12~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2009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장대회 및 제1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동한 현 회장을 제8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했다. 임기는 2009년 2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2일까지로 3년이다.

이동한 회장은 추대 직후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법과 행·재정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복지종사자법을 제정하는데 주력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품질 향상과 차별화전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동한 회장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한국사회복지법인 협의회 공동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뮤지컬 하며 영어 배워요”

제일지역아동센터 ‘영어 뮤지컬’ 눈길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2월 19일 저녁, 영어 뮤지컬 활동으로 주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를 찾았다.

센터 4층에는 초등학생 18명이 모여 앉아 진지하게 영어로 대사를 주고받으며 대본 연습을 하고 있다. 영어 대본을 큰소리로 읽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눈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반짝반짝 빛난다. 지난해 ‘피터 팬’을 무대에 올린 어린이들은 다음 공연인 ‘신데렐라’ 연습에 한창이다.

초등학교 4학년인 석현이는 “일주일에 한번 있는 영어 뮤지컬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며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영어 뮤지컬은 박영식 원장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탄생했다.

영어 뮤지컬 지도는 박 원

장이 ‘사랑의 바이러스 전과자’라고 소개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강상현, 김동현, 이상호, 윤혁진)가 맡고 있다.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들 중

일부는 호주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실력파이다. 영어연극을 했던 봉사자도 있어 대본도 손수 쓴다.

윤혁진씨는 “일주일에 한번 밖에 오지 못하지만 애들과 함께 뮤지컬 연습을 하다 보면 공부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 “애들이 항상 웃음을 짓게 해줘 힘이 솟는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지난해 공연에



△제일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영어 뮤지컬 ‘피터 팬’을 공연하고 있다.



필요한 의상 등 모든 것을 센터

선생님과 자원봉사자와 함께 직접 만들어 부모님과 선생님 등을 모시고 펼친 두 차례의 공연에서 영어는 물론 춤, 노래실력을 맘껏 발휘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지민이는 “처음에는 쑥스러웠

지만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다”며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고 무대에 서면 배우가 된 것 같아서 좋다”고 말했다.

당시 ‘피터 팬’ 공연을 지켜보며 코끝이 찡했다는 박 원장은 “애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심어주고 싶다”며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조순옥 명예기자〉

소/식/마/당

아이성장에 · 체능 프로그램 실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2월 17일 롯데호텔제주의 후원을 받아 롯데호텔 아이스링크장에서 피학대아동 및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 성장에 · 체능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대상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아이스링크장 체험을 통해 건강증진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초아 일일치집 수익금 전달



사단법인 동려회의 고교 청소년 봉사단체인 초아(회장 한덕훈)는 2월 15일 아가의집을 찾아 일일치집에서 얻은 수익금 80만원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초처럼 세상을 밝히는 아이들’의 줄임말인 초아는 2005년 창단 이후 정기적으로 아가의집을 방문해 놀이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동네 디딤팡’ 연중운영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중학생)들이 참여하는 ‘우리 동네 디딤팡’을 연중운영하고 있다.

‘우리 동네 디딤팡’ 사업은 방과 후 청소년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수준별 기초학습지도(영어, 수학)로 학습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얻어 독서·한자교실과 단학기공 등 특별활동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도 경로대학개강식



아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은 2월 2일 아리동에 거주하는 노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경로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아리동 지역 노인들의 행복한 여가문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경로대학은 가요교실, 생활체조, 스포츠댄스, 풍물, 단전호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육만 도의원, 제주장애인야간학교장 취임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 부설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제3대 교장에 오육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원이 선임됐다.

오육만 신임 교장은 2월 12일 취임식을 갖고 “과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학령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을 해 왔다”며 “이번 제주장애인야간학교 교장 취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겠다”고 밝혔다.

오육만 교장은 1989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제주본부 여성위원장을 시작으로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제주여민회 대표 등 여성단체



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향상 등에 힘써 왔다.

현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제주장애인야간학교는 초·중·고 김정고사대비반, 문화예술교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보치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배추로 농가 · 어려운 이웃 돕는다

(주)한라산(대표 현승탁)과 재영종합건설(대표 김창수),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소장 진승정)는 양배추 2045만(700여만 원 상당)을 구입, 2월 20일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를 통해 예향원 등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주)한라산은 1500만, 재영종합건설과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는 각각 285만과 260만을 구입했다. 한편 농협은 도내 양배추 소



비축진운동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해 많은 불량을 출하하고 있으며, 제주 사랑의 열매와 협력해 다른 지방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에서도 양배추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적장애 3급 김수아씨 “학사모 썼어요”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 졸업...사회복지사 첫 발 “지금까지 받은 사랑 장애인에 나눠주며 도와야죠”

지적장애인이 당당히 학사모를 써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2월 13일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를 2년 동안 단 한번의 결석도 없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지적장애인 3급 김수아(39)씨.

수아씨는 어린 시절부터 앓은 지병으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수아씨의 가슴 한편에는 늘 배움의 열망이 가득했고, 11년전 뇌수술을 받은 이후 지병이 완치되면서 그녀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20대 후반에 책을 다시 잡은 그녀는 4년간 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쳐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었다.

경기도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도자기 굽는 일을 도와주면서도 대학 진

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던 수아씨는 동생이 2005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년 뒤 가롤로 의집에 입소하게 되자 동생을 돌보면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가롤로 의집에 함께 입소했다.

이듬해 자신의 꿈을 이룬 수아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도 겪었지만 가롤로 의집 직원들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소년선도분과 동부지구(회장 고영두) 등 주위의 도움으로 2년 후 영광스런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가롤로 의집 최영순 사무국장은 “직원들이 ‘공부 좀 적당히 하라’고 할 정도로 수아씨는 학교생활에 대단히 열성적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꿈에 그리던 학사모를 쓴 수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김수아씨가 졸업식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씨.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나보다 더 불편한 장애인에게 나눠주며 돕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 그녀는 현재 상가정노인복지센터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돌보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첫발을 내딛고 있다.



△이헌택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에게 전달할 물건을 트럭에 싣고 있다.

“맛있게 잘 먹고 있다” 가장 보람

새내기 사회복지상 이헌택씨

“앞으로 혼자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조손가정 등 음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의 저소득 계층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삼성전자, 국민일보가 공동주관하는 제62회 새내기 사회복지상 수상자 이헌택 사회복지사(30·서부종합사회복지관 북부기초푸드뱅크).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크고 작은 푸드뱅크 기탁처를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품을 팔고 있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업체의 물품이 아니라 ‘발매기 후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면 직접 밭에 나가 배추와 무, 당근 등 채소들을 수확하고 다듬어 가져온다.

그는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

는 밭들이 있어 채소류는 어느 정도 불량이 확보돼 있다”면서 “앞으로는 식육점과 유통 분야에서 기탁처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기탁처는 23 곳에 이른다.

처음에는 대상자와 거리감이 있어 힘들었다는 그는 “방문할 때 마다 대상자들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맛있게 잘 먹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또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기탁처 발굴 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력문제 등의 개선,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5년 레크리에이션 1급 자격증을 딴 이씨는 푸드뱅크 외에도 40여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8가지 프로그램을 순회 진행해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양정선 명예기자>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모색

제주애덕 의집(원장 이대원)은 2009년을 ‘자원봉사자의 해’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간 지속적인 유대강화는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중증장애인들의 개별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계획을 모색했다.

이대원 원장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지역사회와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당부했다.



홍익아동센터 다목적실 조성 백록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 3660지구 제주백록로타리클럽(회장 안창준)은 2월 26일 2009년도 봉사프로젝트사업으로 550만원을 들여 홍익아동복지센터에 다목적실을 조성했다.

알림마당

■ 가족자원봉사단 모집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중증장애인과 가족자원봉사단의 정서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제2가족만들기 프로그램 ‘햇살가족만들기’에 참여할 가족자원봉사단 7팀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제주시에 거주하는 3인(부모 및 자녀) 이상의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자원봉사단에 선정되면 중증장애인과 일대일 결연을 맺어 월 1회 장애인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소풍과 체육대회 등 나들이행사에 참여한다.

문의=702-2321, 010-4004-6098.

■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지도자 양성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는 오는 7일과 14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제4기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7일에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이해’, ‘자원봉사교육자료 배포 및 설명’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며, 14일에는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교육지도자로서 실천 강의를 한다. 이에 앞서 2월 28일에는 ‘기관 및 홈페이지 소개’, ‘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을 이수한 지도자들은 도내 학교 청소년자원봉사 교육강사로 활동하게 되며, 우수 교육지도자에게는 해외봉사활동의 기회가 제공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주니어 웰빙 클리닉 교육생 모집

장애 및 비장애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마음껏 뛰어 놀며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는 신체·정서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내 장애 및 비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니어 웰빙 클리닉센터’를 2007년부터 3년째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영교실(화·수·목·금요일), 풋살교실(화·목·금요일), 난타음악교실(월·수·목요일), 아이성장교실(월·수·토요일) 등이 진행되며, 바우처포인트(정부지원금)와 본인 부담금(월 1만~4만원)을 내면 된다.

문의=702-0295.

■ 여성장애인 리더DB구축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김경미)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분야와 인권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리더들의 현황과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리더DB구축사업을 오는 8월까지 실시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편람을 발간해 각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문의=753-4980.

■ 치매예방 노인미술교실 개강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희경)은 오는 4일 치매 예방을 위한 노인미술교실을 개강한다.

미술교실의 중심은 대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과 물감을 이용해 색종이를 오리는 프로그램과 물감을 이용해 대갈코마니 작업 등 다채로운 수업들이 진행된다.

문의=784-8281.



한국물류장애인시설에 생활용품 후원

한국물류(대표 강태원)는 2월 16일 사회복지법인 춘강산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춘강장애인근로센터(시설장 양광호)를 방문해 직업재활에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110여만원 상당의 리면 등 생활용품을 후원했다.

이에 앞서 2월 11일에는 유진재활센터(원장 최은미)를 찾아 100만원 상당의 주·부식용 식재료 및 생필품, 간식 등을 후원했다.

칼럼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고 현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대학교란 말의 어원은 사서중 하나인 '대학'에서 찾을 수 있다. 옛 선인들은 작은 배움을 소학, 큰 배움을 대학이라 칭했다. 소학은 어린이의 계몽을 위한 학문으로, 대학은 성인군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 덕목으로 삼았던 것이다.

인간심성 연구하는 사회복지

대학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사람의 삶에 있어 큰 배움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히며, 백성을 새롭게 하며, 지극한 선(善)에 도달함에 있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新 民 在止於至善)

이 구절을 찬찬히 뜯어보자. 여기서 명덕(明德)이란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신민(新民)은 나와 외부와의 새로움을 통한 외면적 관계를, 이 둘, 즉 내·외적 관계의 변증법적 통일이 지선(至善)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대학'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대학교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를 풀어서 보면 대학교는 단순한 지식체계를 배우는 곳이 아닌데, 결국 자신과 우주의 내·외적인 교류를 통한 '감성적 수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대학생이 가져야 할 본령이며, 대학교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인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대학에 들어선 학생이야 말로 더욱 '감성적 수용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복지야 말로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고 인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한다는 학생이 인문학적 기본 소양은 경시하고 오직 사회복지에 대한 단순한 기술과 암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보인다. 대학 당국 역시 스피드한 취업학과로 몰고 가 철학빈곤의 사회복지사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복지학은 흔히 우스개로 잡학이라고 한다. 잡학은 방소적 의미가 아니다.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잡다한 상황(정치, 경제, 사회, 문화)을 많이 알고 있어야 - 사회현상에 대한 본질을 직시하고 있어야 - 제대로 된 서비스 출

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반발의 원리라는 이론이 있다. 한 세기의 주도적 패러다임에 반발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성된다는 이론이다. 이성과 형식에 치중했던 18세기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19세기 감성과 환상을 중시한 낭만주의가 형성된 것이 그 예이다.

감성적 수용능력 필수 요소

20세기까지는 자본과 물질의 시대였다. 반발의 논리로 본다면 앞으로 자본이 아닌 인간의 심성이, 물질이 아닌 정신의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다. 이 패러다임에 가장 필요로 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복지학이다.

다시 한 번 대학이란 이름을 생각해 본다. 내면적 성찰을 바탕으로 외부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 지극한 선(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큰 배움이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여러분에게 대학은 취업의 이름이 아닌 학문의 이름이었으면 한다. 학문의 이름에서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여러분이야 말로 정신적 패러다임 시대에 사회복지사의 전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월에 입학하는 예비사회복지사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낸다.

시론

노을 지는 바다에서 희망을 건지다



고 보 선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바다는 수평선 너머까지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멋진 곳이다. 내가 자주 찾는 용두암 해안가에는 해가 내려앉을 시간 즈음이면 자연의 장엄한 의식을 맞이하고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나는 문득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곳으로 걸음을 하게 한 것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단지 햇살 좋은 오후 하늘 캔버스에서 빠르게 펼쳐지는 자연색의 변화 무쌍함을 감상하기 위한 것일까.

언제부터인가 나는 노을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황홀해 하기보다 이미 어두워진 그 곳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일출의 눈부신 찬란함보다 아련한 그리움과 아쉬움에 저절로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이 노을의 매력이라며 말이 필요 없는 오랜 친구를 마주하듯 혼자 노을과 만나는 것을 즐긴다.

현재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 기울여야

그 날도 친구와의 교감이 간절하여 그 곳에 갔다. 복잡하게 뒤엉켰던 내 마음의 큐브가 서서히 맞춰지고 있을 즈음, 누군가의 환호에 주위를 돌아봤다. 오랫동안 도보여행을 하였던지 흠뻑 뒹박혀 등산화를 신은 청년들이 지는 노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들은 '우리 다시 힘내자!'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힘차게 걸어갔다. 나는 이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그렇다. 이들은 노을이 지는 바다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것이다. 희망은 바다를 치고 힘겹게 한 걸음 내딛으려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그것이 어떠한 희망이든지 그들에게는 모두 의미있는 것임을 나는 안다.

희망은 탄탄대로에 환하게 밝혀진 조명이라기보다 굴곡진 삶의 여정 속에서 희미하게 비추는 촛불이 아닐까? 촛불의 위력은 대단하다. 하나로는 자기 앞만 밝히는 희미하고 소박한 불꽃일지 모르지만, 여러 개가 함께 불을 밝힐 수 있다면 그 밝기와 힘은 인간이 만든 어떤 조명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네트워킹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들의 마음속 촛불이 살아 숨 쉬는 한 티베트의 희망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불안정한 세계경제가 오랫동안 돌파구를 찾아가지 못하자 심각한 경제공황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려운 현실을 한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꿈꾸고 있는가?

세상을 구원할 개인적 영웅의 시대는 갔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슈퍼맨이 되어 힘을 모아야 한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모으는데 구분이 없어야 하며, 혼자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진심으로 전 세계가 소통되기 전에는 어떠한 방법이든 미봉책에 그칠 것이다.

노을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그들 마음 속 촛불들이 모여 우리시대의 슈퍼맨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 마음의 마지막 큐브는 스스로 맞추기를 바라는 노을 친구의 선물이다.

기고

사회복무요원에게 관심과 사랑을!!



문 창 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장

영화 '300'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에는 또 다른 '300'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요원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우리와 함께 사회복지자를 함께 지켜나가고 있는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청년들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타율에 의해 출발하였지만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복무자세와 사회복지자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사회복지현장에서의 2년여 동안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의 벗들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은 기존의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받고 현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은 2주간의 사회복지 직무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적 이해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에 대한 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 실천 방법론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주간의 직무교육을 통해 단순했던 '병역자원'에서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회복지 전문보조인력'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노력과 더불어 수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항상 일손이 부족한 사회복지현장에 사회

복무요원들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과 시설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필요하시면 매년 3~4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요원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청년입니다. 20대 초반의 청춘시절,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을 대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우리의 자녀들이자 동생들이 것입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가 지키는 사회복지현장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는 200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사회복지현장에 힘이 되어줄 사회복지요원이 되도록 사회복지 직무교육을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개혁방안을 위한 토론회

“시설 및 서비스 평가 · 관리체계 확립돼야”

이정선 국회의원(한나라당)은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 전체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본지는 ‘사회복지시설 개혁방안을 위한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사회복지시설 개혁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정선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김종인 원장 “평가자의적 해석 등 신뢰성 부족”

감독 · 인증 기관 설립 후 업무 총괄 · 조정 수행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시설 평가 대신 상설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해 시설 및 서비스의 평가, 검증,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은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시설 평가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평가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평가인력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기준에 대한 문제, 평가대상의 문제, 평가 자체의 신뢰성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종인 원장은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미국은 CARF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미국재활시설 인증위원회)에서 기관 전체의 인증 뿐만 아니라 개별프로그램에도 인증을 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 “CARF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감과 기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획득해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서 향상된 이미지를 갖게 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에 대한 평가체계가 단순해 정확한 시설의 양적, 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CARF에서는 운영이나 인적자원 등 전반적인 것이 평가항목으로 규

정돼 있어 시설의 거의 모든 면을 평가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도 미국의 CARF와 같은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 기관에서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이용자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장해 시설이용자의 귀가조치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등 모든 업무를 총괄 · 조정하는 기능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시설 관련 개별법의 정비를 주문했다.

김 원장은 “각 대상자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 이를 바탕으로 한 심층적 연구를 거쳐 사회복지 관련 개별법인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의 현실적인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각각의 법의 제 ·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설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24시간 근무에서 2교대로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 시설의 특성에 적절한 업무기준을 세우는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에 대한 법 ·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인력과 경영 전문화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김 원장은 “인증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균일한 수준의 사회복지 경영과 서비스 제공을 확

립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설의 특성과 고객의 특이성을 감안한 서비스 제공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동일형태의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명실상부한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사회복지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성 확보가 이뤄진

이 발생하는 평가제도보다는 인증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분야별 특수성에 맞는 자체적인 인증지표가 하루 속히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을 강조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 전문치료사 등 전문 기능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나 처우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 제 · 개정 추진 주문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강조

다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동의 양과 질, 그에 따르는 효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설 종사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보수의 인상문제와 부족한 시설의 인력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규모와 목적에 맞는 서비스 표준화를 도입해 서비스 표준비용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예산지급방식이 채택돼야 한다”며 대형시설에 유리한 예산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시설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총액 운영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영락에니아의집 장은희 원장은 인증시스템 도입에 공감함을 표시했다.

장 원장은 “부작용과 문제점

문제와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제대로 실천해 보기도 전에 이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장은 “장애인이 입소해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하고, 신규로 시설을 설립할 경우 소규모로 제한해 지역사회통합 소규모시설을 확충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시설에 유리한 정부보조금 지급방식을 개선해 개인별 보호비용을 산정하고 시설 규모와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해 지급하는 방식과 이용자와 시설서비스 제공자간 공식적인 계약에 따라 입소가 이뤄지는 입소계약제도를 도입 하겠다”고 했다.





2009제주유나이티드 어린이서포터즈와 연간회원 모집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특히 올해에는 어린이 여러분들께

더 많은 혜택과 **점퍼, 티셔츠, 가방 등 푸짐한 선물** 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선착순 3,000명



문의전화: 1588-2364

회원혜택 어린이서포터즈 10,000원 / 일반회원 30,000원

※ 위 선물은 이미지와 실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카드(OCB겸용) 제공 | 2009년 제주유나이티드 전경기 관람가능(홈경기) | 회원선물(어린이서포터즈) 및 감규리포인트 제공 | W석 지정구역제 | 용품샵 이용 시 할인제공 | 팬미팅 외 축구단주최 이벤트 우선 참가권 부여

■ 판매처 : 인터파크, 헤미리마트 전지점, 삼다아이, 삼화석유 직영주유소 (법환,에이스,백록,천마,삼화,승민,서경,행복날개)
청소년(군,경)회원 20,000 원 / 가족회원(4인 기준) 60,000 원 / 법인회원(10인 기준) 100,000 원